

제주항공



I. 콘텐츠 개요



1. 주제: 제주항공 누적 탑승객 1억명 돌파

2. 주요 키워드 * 기 배포된 보도자료 기반

- 2006년 첫 취항 이후 17년 만 1억명 돌파, 시장 선도 항공사로 항공여행의 대중화 견인
- LCC 고유의 합리적인 운임, 다양한 스케줄, 쾌적한 기내 서비스에 집중
- 코로나 이후 선제적 변화 관리 바탕, 시장 상황 및 수요에 따른 일본/ 동남아 노선 위주 운영의 결과물
- 3. 게재 시점: 8월 초

4. 게재 채널:

- 그룹 웹진 내 계열사 주요 발자취를 담는 History 카테고리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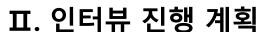
HISTORY

뿌리를 튼튼히 만든 시간 - 2001(하)

그땐 그랬지 지나간 애경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보 고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전합니다…

2023-06-16

* 최근 제주항공 관련 컨텐츠는 '화물 사업' (화물기로 띄워 올린 제주항공의 새로운 도전 – ON AEKYUNG)





- 1. 인터뷰 일시: 8/3(목) 15:00 ~ 17:00
- 2. 인터뷰 대상: 김이배님, 커머셜기획팀 김남준님·김수지님·노기민님(예정)
- 3. 인터뷰 장소 및 동선
- (15:00~15:30)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발층 제주항공 카운터, 대표님 및 김포지점 사진 촬영
- (15:30~16:00) 항공지원센터 3F 대표님 집무실, 김이배님 인터뷰 진행
- (16:00~17:00) 항공지원센터 2F 스마트오피스 포레스트룸, 커머셜기획팀 인터뷰 및 촬영 진행

4. 인터뷰 내용

인터뷰 대상자	인터뷰 내용
대표님	- 제주항공과 대표님께 '누적 탑승객 1억명'의 의미는 무엇인지 - LCC 최초 1억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 - 임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
커머셜기획팀	- 코로나 이후 주요 노선 전략 - LCC 최초 1억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 - 지역별 주목할만한 노선 실적 - 향후 노선 계획 (신규 노선/ 지방 노선 등)



皿. 대표님 인터뷰 답변(안)

질문 내용	답변(안)
제주항공에게 '누적 탑승객 1억명'의 의미는 무엇인지	제주항공이 지난 7월2일 2006년 6월 첫 취항 이후 17년만에 누적탑승객 1위를 달성했습니다. 이는 국내 항공업계에서 역사적인 순간으로, 지난해 7월 9000만명 돌파 이후 1년만의 성과입니다.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990년, 1995년(추정)* 1억명을 돌파한데 이어 세번째 1억명 돌파 이며, 2016년 7월 국적 LCC 통합 수송객 수가 1억명을 돌파한데 이어 7년만에 이룬 유의미한 성과입 니다.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신조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공급확대 기조를 이어가면 7년 뒤인 2030 년쯤 2억명을 돌파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.
LCC 최초 1억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	- 제주항공만의 핵심 경쟁력인 '중단거리 노선 회복'이 주효했다고 보고있습니다. 중화권 회복이 더 단 상황에서 일본, 동남아 중심으로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선제적인 변화관리를 진행했습니다. 이 같은 전략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제치며 국적항공사 수송객 수 2위 자리를 차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. 특히 우리의 주력 노선인 일본, 필리핀, 대양주 노선은 국적사 중 수송객 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. 코로나 이전 대비 기단 규모가 축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가동률을 높이고 코로나 기간 억눌려있던 펜트업(Pent-up)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1억명 돌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제주항공이 항공여행 대중화를 이끌었을뿐만 아니라 방한객 유치에도 앞장섰다는 점입니다. 누적탑승객 1억명 중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비율이 8:2의 비율을 차지합니다. 비록 아직 외국인 누적 탑승객은 2천만 여명 수준이지만, 앞으로 제주항공이 우리나라 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.
임직원에게 하고 싶은말	1억명 돌파는 운항,객실,정비,운송 오퍼레이션 부서부터 스텝부서까지 모든 임직원의 노고로 만들어 진 결과물입니다. 회사가 추구하는 LCC 고유의 합리적인 운임, 다양한 스케줄, 안전하고 쾌적한 운항을 유지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항공사로 자리잡았습니다. 이제는 국적 No.1 LCC 위상을 견고히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적사 2위로 나아가며 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려갔으면 합니다.